

2010-03

통권 282호



#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1. 25 (月)



## 경제이슈

美 경제활동 소폭 개선  
국가채무 규모 급등

## 경영노트

소비자 전략의 진화

## 사회트렌드

아바타 신드롬

## 차이나 리포트

2009년 중국경제 '성적표'와 향후 전망

## 저널브리프

수면경제학(sleeponomics)

## 洗心錄

자기 계발에 주어진 10년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美 경제활동 소폭 개선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13일)가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각 지역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차츰 개선되는 추세
  - 소비지출 : 2009년 연말 휴가 시즌의 소비는 2008년에 비교하면 약간 증가를 나타내며 회복세를 보이거나 2007년에 비교하며 여전히 침체
  - 고용 및 임금 : 전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임금 상승이 몇 대도시에서 나타났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임금 상승 압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 거의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부문의 판매가 약간 증가하였고 세금 공제로 인해서 중저가 주택 판매 증가율이 고가 주택 판매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국가채무 규모 급등

- 2009년 국가채무 규모가 OECD 기준으로는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및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2008년 대비 급등하였음
  - 국가채무 규모 : 2008년 309조 원에서 2009년 3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추정. 올해에는 407조 원으로 전망
  - OECD 기준 평가 :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말 현재 GDP 대비 34.9%로 일본(218.9%), 미국(84.8%), 영국(68.7%)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297개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급등할 것으로 보임
    - ※ 국가채무란 국가가 외환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한 국채로 지게 되는 금융성 채무와 정부의 세입을 초과한 지출로 발생하여 국민부담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
-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로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10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전략의 진화1)

-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소비자 지식의 획득이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제품개발 방향 결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됨
  - 소비자가 참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존 전략에 소비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더하여 제품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함
- (소비자 활용 전략) 소비자는 숫자도 많으며 기업 인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적극적 대화) 기업 경쟁력을 위해 소비자의 의견과 정보는 빠질 수 없으며, 이미 다른 경쟁사들은 이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 (소비자 커뮤니티) 기업 혹은 상품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어 개발의 아이디어 뿐 얻는 것 외에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식을 제공해야 함
  - (다양성 관리) 첨단 기술 제품일수록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준 혹은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개인적 경험의 창조)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고객화 (Customization)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를 제조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사용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제공해야 함
- (사례)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보유한 애플은 효율적인 소비자 전략을 통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기업이 되었음

< 애플의 소비자 전략 사례 >

	내 용
적극적 대화	•애플 스토어(Apple Store), 애플 카페(Apple Cafe)를 통해 소비자 신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의견이나 질문을 받아 소비자가 제품에 익숙해지도록 유도
소비자 커뮤니티	•오프라인에서의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애플 포럼(Apple Forum)을 만들고 제품에 대한 사용자간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
다양성 관리	•특정 범주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애플이 진출한 모든 나라 언어로 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다 원활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
개인적 경험의 창조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폰 소비자를 위하여 패션쇼 영상 및 상품,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폰 서비스나 패션에 관련된 소비자의 요구를 듣고 반영하는 마케팅을 전개

1) 본 자료는 2010. 1. 동아비즈니스리뷰 ‘기업, 때론 소비자 가르쳐야’를 요약 정리함

□ 아바타 신드롬<sup>2)</sup>

- 세계 최대 흥행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아바타>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서있는 현실을 투영하는 창이 되고 있음
  -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에선 철거반대 운동 등과 연계해서 <아바타>를 해석
  - 영화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서구에선 영화 <아바타>를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우화로 해석하는 흐름과 그에 대한 반박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음
  -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고국인 캐나다의 네티즌 매체 <래블>은 지난 14일 “많은 진보적 관객에게 <아바타>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주도한 식민 점령 전쟁에 대한 정면 비판”이라고 평가
  - 미국의 블로거 데이비드 스완슨도 “<아바타>는 미국의 군사제국주의가 자원을 얻기 위해 남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라고 단정
  - 반면 보수쪽에서는 <아바타>의 흥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화의 ‘정치성’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분위기
  - 국제정치 전문가 나일 가드너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아바타>의 흥행성공은 관객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값비싼 설교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첨단 3차원 입체영상을 즐기려 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라크전쟁의 성공 이후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는 좌파의 반전 수사에 질렸다”고 주장
- 중국에선 <아바타>에 나오는 외계 종족 나비족을 철거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논의가 커지고 있음
  - 지난 11월, 쓰촨성 청두시에서 중년 여성이 강제 철거를 막으려다 분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음
  - 홍콩에서 아바타가 고속철도 건설 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 광선성(홍통-선전-광저우) 고속철도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선 주민들과 젊은이들은 <아바타>를 관람하며, 영화 내용이 자신들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며 철거 반대운동의 의지를 다짐

---

2) “나비족은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 아바타 신드롬”(한겨레신문, 2010.1.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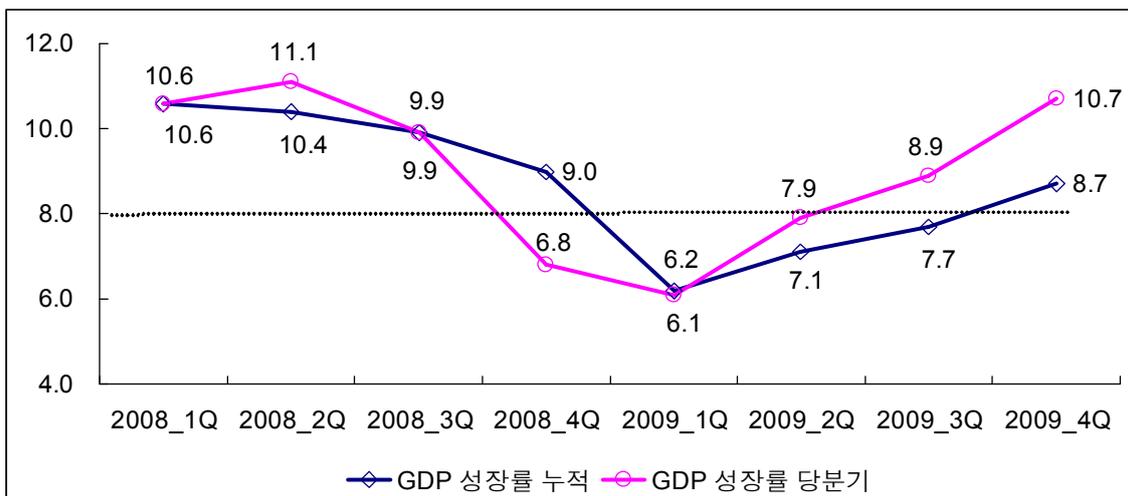
□ 2009년 중국경제 '성적표'와 향후 전망

■ (개요) 1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9년 중국 경제가 8.7%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바오파(保八)'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발표

- 2009년 중국 경제는 1/4분기를 전환점으로 가속 성장 가도에 진입함
  - 2009년 4/4분기 중국경제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0.7%나 상승, 1/4분기(6.1%)에 비해 4.6%p 가속화 됨
-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함
  - 특히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 동남아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중국 증시의 등락에 따라 좌우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신장되었음

<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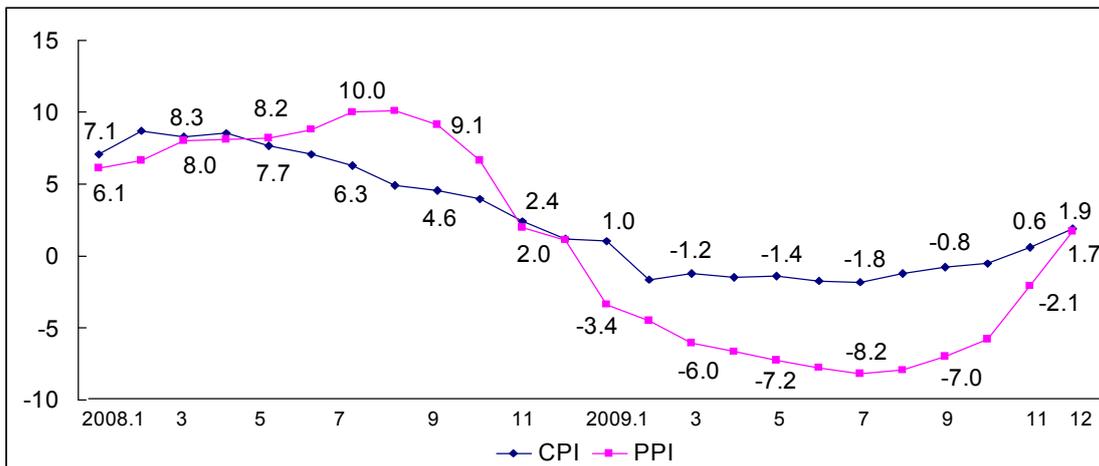
■ (문제점) 중국이 '바오파'를 위해 실시한 일련의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대두

## ❖ 차이나 리포트

- 2009년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와 통화량 증가 속도는 당초 계획의 2배에 달함
  - 2009년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는 9조 6천억 위안으로 계획(5조 위안)보다 4.6조 위안 증가함
  - 광의 통화량(M2) 증가율은 27.7%로 당초 계획(17%)에 비해 10.7%p 가속화 됨
- 중국의 대출 증가와 유동성 확대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물가 또한 상승 조짐을 시현함
  - 2009년말 현재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80% 정도 상승,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말 대비 7.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생산자물가지수도 12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 < 월별 중국 CPI, PPI 변화 추이 >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 (시사점) 중국경제에 대한 인플레이 기대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중국의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수면경제학(sleeponomics)<sup>3)</sup>

-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수면부족’ 및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음
  - 200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 7시간 30분보다 1시간이 부족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장애 질환’의 실진료 환자 수가 2001년 5.1만 명에서 2008년 22.8만 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간 4.5배 증가했음
- 수면장애의 원인으로서는 현대사회의 경제난과 취업난에 따른 불안, 우울 증·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주야간 교대 근무,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하루에 3~4시간만 자는 유명인사를 칭송하고 잠을 줄이는 것을 근면성의 상징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수면장애의 원인으로 지적됨
- 수면부족 및 수면장애는 개인 차원의 문제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수면부족의 경제적 비용 >

문제점	내 용
학습, 업무 장애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면장애 및 수면 부족은 낮시간 동안 무기력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업무상 실수 및 업무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음</li> </ul> </li> <li>•또한 2005년 미국인 수면 조사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결근율은 1년에 15.8일로 건강한 사람의 1.6일에 비해 장기결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li> </ul>
사고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9년 엑손발테즈 기름유출 사건,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이 담당자의 수면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li> <li>•또한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사망의 가장 큰 원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졸음운전(23%)이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중(32%)도 가장 높았음</li> </ul> </li> </ul>
진료비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44억 원에서 2008년 194억 원으로 440% 증가하였음</li> <li>•전세계적으로도 처방 수면제 시장이 2005년 37억 달러에서 2014년 5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ul>

3) “잠 못 드는 밤...경제적 비용 ‘쑥쑥’”(한경Business, 2010.1.18) 참조

## □ 자기 계발에 주어진 10년

2008년 퇴직자 성향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퇴직자는 18만 3,4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7.2%에 불과했다. 반면 30대 퇴직자는 84만 4,533명으로 32.9%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도 64만 4,281명으로 25.1%나 차지했다. 전체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 층인 셈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고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근속년수가 5~10년도 채 되지 않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30대 퇴직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는 비즈니스맨으로서 개개인이 회사내 목표하는 위치 또는 일생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데에 약 10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년 정도 되면 비즈니스의 능력을 몸에 익히고, 자신의 스킬을 높이고, 그래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를 제대로 해 회사 내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30대 퇴직 위기를 걱정하지 않고, 장차 프로페셔널이 되거나 경영자가 되는 젊은 경영 리더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프로든 리더든 인생 성공을 위해 주어진 입사 후 10년 동안의 비즈니스 생활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일이다. 사람은 일을 통해 성장해 간다. 일이라는 환경은 사람을 키우며, 그 속에서 자신의 소질이나 재능, 그리고 한계를 깨우치게 된다. 장래 성공에 필요한 요건의 대다수는 일에서 배운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는 공부다. 일이 실전 능력을 쌓는 토대라면, 공부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적인 틀을 학습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토대이다. 세 번째는 ‘역할 모델(role model)’을 만나는 것이다. 젊었을 때 ‘따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성공의 조건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추구하는 이는 많지만,  
목표를 추구하는 이는 많지 않다.”

-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1900) : 독일 철학자 -